日, 토다이지 연례법회 '슈니에' 비공개 검토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조치

752년 처음 봉행…最古 법회
입재 2주 전부터 격리 방안도
'불퇴의 행법' 지속 의지 확고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천년고찰이자 노사나대불로 유명한 토다이지(東大寺)에서 매년 봄에 열리는 특별법회 '슈니에(修二会)'가 내년에는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5일 일본의 'NHK' 등 주요 언론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내년 봄 슈니에 형태를 변경될 예정임을 특별보도했다.

토다이지의 슈니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슈니에 법회로 기록상 752년에 최초로 봉행됐다. 일본왕실의 발원으로 시작된 이 법회는 음력 1월을 기점으로 진행된다. 악업을 참회하고, 불보살을 공양한 공덕을 나라를 위해 회향해 한 해의 평안과 풍작을 기원하기에 매년 봄 일본 각지에서 봉행되고 있다.

토다이지는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11면관세음보살을 모신 니가츠도(二月堂)법당에서 슈니에를 봉행한다. 수행과 학덕이 뛰어난 11명의 스님을 엄선해 매일 6차례 법당을 요잡하며 참법(懺法)을 독송한다. 이 슈니에는 천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봉행돼 의미가 깊다. 18세기엔 슈니에가 봉행되기 전날 화재로 니가츠도 법당이 전소했음에도 장소를 바꾸어 봉행했다. 물자와 인원이 부족했던 2차 세계대전 시기에도 대중스님들의 노력으로 봉행돼 '불퇴의 행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특히 토다이지의 슈니에에서 유명한 것은 관세음보살에게 올릴 공양수를 긷는 법요와 한 해의 액을 막기 위해 커다란 횃불을 들고 니가츠도의 난간을 질주하는 행사다. 특히 대나무 횃불에서 떨어지는 불똥이나 재를 맞으면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행운이 깃든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횃불을 보기 위해 연간 약 3만 명의 신자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내년 봄에 봉행될 슈니에를 위해 토다이지는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토다이지의 하시무라 코에이 스님은 "슈니에는 예년과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은 규모로 봉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니에가 봉행되는 니가츠도 법당을 살펴보는 스님들과 관계자들. 사진출처=NHK 보도영상 캡쳐

특히 슈니에에 참석하는 11인의 스님들은 약 한 달간 함께한 법당에서 숙식을 같이 해야 하는 만큼 토다이지 측은 감염병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 이달 중순에 정확한 계획을 공표할 예정이다.

토다이지의 의뢰를 받은 나라현립대학병원 감염증센터의 카사하라 케이 센터장은 "슈니에를 봉행하는 스님들 중 한 사람이라도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 스님들도 모두 격리조치에 들어가는 만큼 슈니에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또한 "각 작법과 의례에서 스님들이 위치하는 장소나 행동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어 거리두기나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토다이지와 나라대 감염증센터가 세운 대책으로는 슈니에에 참석하는 대중전원이 입재 2주전 자가 격리와 PCR검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카사하라 센터장은 "약 한 달간 합숙형식으로 법요가 진행되는 만큼, 감염방지 대책도 대책이지만 외부에서의 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다. 불퇴의 행법이라는 이 전통이 이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日정토종 총본산, 350년만의 복원 회향

10월 25일 낙성법회 봉행
창건 당시의 모습 되찾아

일본 정토종의 총본산인 지온인(知恩院)에서 뜻깊은 법요식이 봉행됐다. 약 9년간의 대공사 끝에 창건 당시 미에이도(御影堂)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지난 25일 일본의 '산케이 뉴스', '교토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은 미에이도에서 열린 낙성보고법회의 모습을 일제 보도했다.

지온인에서 가장 큰 건물이자 중심건물인 미에이도(御影堂)는 일본 정토종의 종조인 호넨스님(法然: 1133~1212)의 조상을 봉안하는 전각이다. 사찰을 대표하는 전각이기에 본당(本堂)이라고도 불린다. 미에이도는 1639년 재건된 이래 부분적인 보수는 이루어졌으나 전면적인 수리는 이뤄진 바 없다.

정토종은 지난 2011년 호넨 스님 원적 800주기를 맞아 미에이도의 수리를 결의, 8년을 예상기간으로 잡고 대대적인 수리 공사에 들어갔다. 2011년 12월 25일, 미에이도의 호넨 스님상을 청소하고 수리를 알리는 고불식을 봉행한 후 내부의 불상들을 이운하면서 공사가 시작됐다. 이번 수리공사에선 미에이도의 모든 기와와 불구, 불상, 내부장엄 등 약 380년만의 대규모 수리가 이뤄졌다. 또한 수리와 함께 내진설계의 보강과 같은 현대 기술의 적용도 진행됐다.


대중들이 모여 엄숙히 봉행한 미에이도 낙성보고 법요의 모습.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지난 4월 13일, 모든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창건 당시의 모습이 완벽히 복원됐다. 지온인과 정토종 측은 대규모 낙성식과 각종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중지 및 축소됐다. 대신 정토종의 문주(門主: 한국의 종정)인 이토 유이신 스님을 법주로 한 낙성법요식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낙성식 법요에선 다른 전각에 임시 봉안했던 호넨 스님상을 다시금 미에이도로 이운하여 모시고 미에이도의 문을 여는 의식이 봉행됐다.

지온인 측은 25일 봉행된 낙성보고법요에 대해 "낙성법회와는 별도로 낙성보고법회를 통해 축소되었던 낙성식의 기쁨을 다시금 되살리려 했다. 코로나 19가 잠시 진정된 때를 맞춰 봉행한 것"이라며 법요봉행의 취지를 전했다.

이 날 미에이도에선 문주인 유이신 스님을 법주로 종단의 주요 소임자들과 공사관계자 등 50인이 법요에 참석했다. 유이신 스님은 "오랜 공사 끝에 종조의 상이 미에이도에 돌아오고, 법당의 문도 다시 열렸다. 살아있는 법당이 되었다. 살아있는 법당에서 법요를 모시게 되어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유이신 스님은 또 "어지러운 세계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미에이도에서 염불을 외워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온인 측은 "낙성보고법회에 따라 문화공연이나 각 지역별 교구의 단체참배 등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지, 혹은 내년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얀마 민족주의 승려 '아신 위라투' 자수

극단적 혐오발언으로 지난해 체포명령

지난 11월 3일 아시아 국제 온라인 뉴스 '더 디프로매트'는 미얀마의 극단적 민족주의자 승려 아신 위라투 스님이 자수했다고 보도했다. 아신 위라투 스님은 미얀마의 극우파이자 민족주의자로 2019년 5월 28일 체포 명령을 받은 지 18개월 만인 11월 2일 경찰에 자수했다.

아신 위라투 스님은 자수하기 직전 모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11월 8일 선거에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아웅산 수치 여사와 그녀의 악랄한 전국 민주 연맹(NLD)정부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이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이렇게 몰아넣은 것이다. 나는 경찰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협조할 것"이라고 연설한 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라투 스님은 2001년 미얀마 불교계 전체가 참가한 대대적 반이슬람주의 테러인 969운동을 주도했고 그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 정치범 석방 명단에 포함되어 석방된 후에도 미얀마 내 이슬람교도에 대한 혐오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2013년 미얀마의 정치 개방 당시 미국 주간 잡지인 타임지에 '불교 테러리즘의 얼굴'로 표지 모델로 올랐다.


미얀마 중북부 만달레이에 있는 마소예인 사원에 걸린 위라투 스님의 지명수배 포스터 사진출처=더 디프로매트

국제 위기 분석가인 리처드 호시는 "위라투 스님의 자수는 11월 8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보여지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도 위라투 스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슬람교도, 특히 로힝야족들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불교성지 하늘 순례길 열려

32개주 99개 성지 상공비행
수행 침해 등 비판 목소리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파산 직전에 놓인 태국 국영 항공사 타이항공(THAI)이 하늘 순례길 코스를 개시했다. 지난 11월 5일 'UCA 뉴스'는 태국 국영 항공사의 신규 노선인 하늘 순례길 코스를 보도했다.

'태국의 신비로운 비행(THAI Magical Flying Experience)'으로 명명된 이 코스는 태국 32개주를 중심으로 99개의 불교 성지를 상공으로 순회하는 성지순례 코스이다. 해외운항 노선이 사실상 막힌 현재, 착륙이 없는 국내 순회 비행을 통한 관광상품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며 개발된 성지순례 프로그램이다.

최근 코로나19를 막아주는 영험이 있다고 알려진 사찰이나 호신부가 인기를 끌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타이항공은 이번 하늘 순례길로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타이항공은 현재 1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파산을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

위왓 피야와로지 타이항공 영업부사장은 "하늘 순례길은 중간 착륙지 없이 3시간동안 비행한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300달러, 비즈니스 클래스는 930달러이며 기내식과 예불집, 특별한 호신부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유명 점성술사 카타 친반촌이 함께 탑승해 탑승객과 함께 염불을 외우며 불교 성지 상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치앙마이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있는 치앙다오 동굴 사원. 불자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 사진출처=AFP

하늘 성지순례는 오는 11월 30일 방콕 수바르나부미 공항에서 이륙해 태국 동부와 남부의 99개 성지 상공을 비행한 뒤 복귀 비행을 한다. 이번 특별 비행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일각에서는 "공중에서 성지를 내려다본다는 생각이 불경하다"는 반박도 일고 있다. 한 불자는 "성지를 보기 위한 저공비행은 수행처의 정진 분위기를 망치고, 불교의 영적 가치를 상업화하여 불교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비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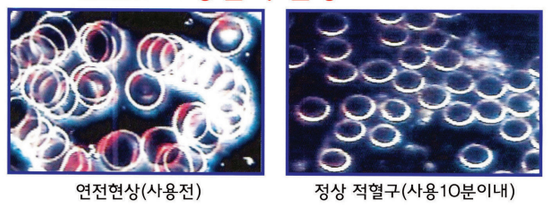
김민재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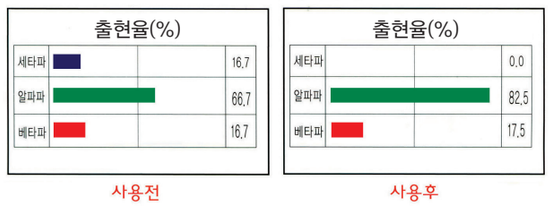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을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정상화시켜주고 혈액,세포,뇌파를 건강하게하는 게르마늄허브비누
포도상구균 99.9% · 폐렴균 99.9% · 대장균 99.9% 정균감소기능으로 아토피, 무좀, 검버섯, 뾰루지, 여드름,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 발뒤꿈치 각질개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 41년 3월생 개발자 본인은 관절 불편을 느껴보지 못했고, 안경없이 신문을 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